

재래시장 유통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

- 재래시장 유통 가금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로 질병확산 차단 및 농가보호
- 조류에서 사람에게로 바이러스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

1. 조사개요

- 조사기간 : 2011년 2월 ~ 12월
- 조사대상
 - ▷ 재래시장 (2곳) : 북구 구포시장, 금정구 오시계시장
 - ▷ 검 체 : 유통가금류의 인·후두 swab 및 분변 (총 400점)
- 조사항목 :
 - ▷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여부 (항원검사)
 - ▷ HA검사서 양성 판정시 혈청형(H5/H7)판별을 위한 PCR검사 실시

2. 조사방법

- 살아있는 유통가금류를 취급하는 부산시내 재래시장 2개소를 대상으로 인·후두 swab시료 및 분변시료를 채취하여 전처리 후 부화란에 접종한다. 접종 부화란은 5일간 배양해 요막액을 채취하여 혈구응집반응(HA)검사를 실시하며 양성일 경우 PCR검사를 실시하여 혈청형을 판정한다.

3. 조사결과

- 유통가금류에서 채취한 인·후두 (총 400점)의 시료 검사 결과 전건 음성으로 판정되었음.

표 1. 2011년 월별 바이러스 검사 현황 (닭)

월별	4월	6월	8월	10월	누 계
시장명	구포·오시계	구포	구포	구포·오시계	
시료수	160	40	60	40	300
결 과	음 성	음 성	음 성	음 성	음 성

표 2. 2011년 월별 바이러스 검사 현황 (오리)

월별	6월	8월	10월	누 계
시장명	구 포	구 포	구 포	
시료수	40	20	40	100
결 과	음 성	음 성	음 성	음 성

4. 예방대책

- 가금류 사육농가의 철저한 소독, 외부인 출입금지 및 야생조류와 접촉을 차단
-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자제 및 농장방문자제
- 질병이 없는 우수사육 농장에서 가금류 구입

5. 기대효과

-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래시장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재래시장유통 가금류에 대한 신뢰성 확보
- 유통가금류의 감염검사를 통해 초동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